

# 영화 대사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등장인물의 감정과 서사간의 상관성 연구

##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Narrative and Emotions Displayed by Movie Characters through a Quantitative Analysis of Dialogues in a Movie

유은순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Eun-Soon You(tesniere@naver.com)

### 요약

영화의 언어적 요소인 대사(dialogue)는 영화의 서사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스토리를 이 미지로 표현하는 영화의 매체적 특성상 영화 분석의 초점은 주로 영상에 맞추어져 있었고, 대사는 평가절하되거나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영화 연구에서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던 대사가 서사의 진행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고, 대사가 영화에서 갖는 의미를 조명한다. 이를 위해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표출된 감정 표현(emotion expressions)들을 대사로부터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긍정과 부정으로 극성 분류를 한 후, 감정 표현들의 비율이 어떻게 서사와 연관성을 갖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 중심어 : | 영화 대사 | 감정 | 서사 | 로맨틱 코미디 |

### Abstract

A linguistic element found in a movie, dialogue, plays a critical role in building up narrative structure. Still, analyses conducted on movies mostly focus on images due to the nature of a movie that conveys a story through its visual images while dialogue has either been underestimated or received less spotlight despite their importance. This study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lines in a movie. This study calls attention to dialogue, which has stayed out of the main focus and been on the periphery thus far when analyzing movies, so as to see how they contribute to constructing a narrative. It then spotlights the significance of dialogue in the movie.

To this end, the study sorts out emotional expressions articulated by actors through their dialogues then to make polarity classification into affirmation and negation, followed by a quantitative analysis of how the polarity proportion of emotional expressions changes depending on the narrative structure. The study also suggests a narrative's relevance with emotions by pointing to dynamic emotional changes that shift between affirmation and negation depending on incidents, conflicts and resolution thereof throughout a movie.

■ keyword : | Film Dialogue | Emotion | Film Narrative | Romantic Comedy |

## I. 서론

대사는 문학, 연극, 영화와 같이 스토리를 전달하는 매체가 갖는 공통적인 표현 양식이다. 그러나 영화는 이미지와 사운드를 포괄한 영상 매체이며, 영화의 대사는 음악, 음향과 함께 사운드의 일부라는 점에서 문학의 대사와는 다르다. 또한 시각적인 대상으로 간주되는 영화의 대사는 청각적인 대상으로 보는 연극의 대사와도 구분된다.<sup>1</sup>

1920년대 영화에 사운드가 도입되어 발성 영화의 시대가 열리면서 대사는 영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 무성영화 시대의 코미디는 배우들의 유연하고 익살스럽고 과장된 신체 연기를 통해 희극성을 창조했다면, 발성 영화시대의 코미디는 언어의 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영화에서 대사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무성인 영화에서 말(spoken language)보다는 비언어적 표현 수단인 이미지가 보다 핵심적인 요소이자 영화 매체의 본질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영화에서 시각적인 영상이 보다 주목을 받게 되면서 영화 서사에서 대사는 오랫동안 부차적인 영역으로 평가절하되거나 과소평가 되어왔다. 영화의 의미 작용은 편집기술과 샷(shot), 장면 구성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영화의 언어적 요소인 대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고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영화를 구성하는 이미지와 사운드(음악, 음향, 대사)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며 보완적이다. 대사는 이미지의 이해를 도우며, 음악과 음향, 배우들의 표정과 행동은 대사가 함의하고 있는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영화의 스토리는 이미지와 사운드의 통합적 작용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

Kozloff와 Vassé는 대사가 영화의 서사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영화 대사 연구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영화 대사는 시공간적 배경과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알려 주며[19], 인물의 표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 속에 감추어진 인물들의 감정적 함의까지

도 표현함으로써 영화의 서사를 이끌어나간다[17].

본 논문은 영화 대사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감정(emotion)에 주목을 하고, 감정이 영화 서사와 맺는 관련성을 정량적 분석에 기초하여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 대사 속 등장인물들의 감정 표현은 관객과 등장인물간의 동일화를 유도하는 주요 장치이자,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이다. 등장인물들의 감정 상태는 얼굴 표정이나 카메라의 움직임 같은 시각적 단서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울하다', '화가 난다'와 같이 말을 통해 전달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영화 대사에서 언어를 통해 표출된 감정 표현(emotion expressions)들을 선별하여 두 개의 극성인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한 후 영화 속 사건 발생과 인물들 간의 갈등, 그리고 갈등의 해결에 따라 감정의 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해 대사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서사간의 유의미한 상관성을 제시함으로써 대사가 이미지 못지않게 영화의 서사를 진행시키는 주요한 도구임을 입증한다.

국내의 경우, 영화 대사는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과 유행어, 신조어 등을 포함한 언어적 자료라는 점에서 주로 사회문화적 연구의 대상으로 쓰이거나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 연구의 대상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정량적 분석을 통해 얻어진 특정 어휘 혹은 고빈도 어휘와 서사가 갖는 관련성 연구도 문학 작품에 한정되어 진행 되었으며, 영화 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시라노;연애조작단>의 대사를 대상으로 감정 표현을 단순 어휘에서 관용구에 이르기까지 수작업을 통해 선별하고 서사의 극적 긴장과 이완에 따른 감정 표현들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서사와 감정이 갖는 관련성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영화 대사와 문학 텍스트에 대한 정량적 연구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영화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대사의 기능을 소개한다. IV장에서는 한국 영화 <시라노;연애조작단>에 나타난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적 관습과 서사 구조를 분석한 후, V장에서는 영화

1 McKee는 영화의 미학은 80퍼센트가 시각이고 20퍼센트가 청각적인 반면, 연극은 80퍼센트가 청각이고 20퍼센트가 시각[17]이라고 하였다. Vassé 역시 영화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는 스펙터클이며, 연극의 대사는 듣고 이해해야 하는 대상[18]으로 간주하였다.

<시라노:연애조작단>의 대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IV장의 서사 분석 결과에 따라 감정 비율의 변화 양상 살펴봄으로써 감정이 서사와 갖는 관련성을 제시한다. 6장에서는 연구의 결과와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 II. 관련 연구

### 1. 국외 연구 사례

국외의 경우, 영화 대사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와 행동(action), 사건(event)과 같이 영화의 서사를 구성하는 정보들을 자동 추출하거나 추론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Lingabavan & Salway(2006)는 6섯개의 장르(액션, 코미디, 드라마, 로맨스, 공상과학, 스릴러)로 구성된 60편의 영화 대본에 대해 각 장르별 어휘(vocabulary) 평균, 대사(dialogue)의 전체 단어 평균, 그리고 1분당 대사의 단어 평균을 구하여 장르에 따른 어휘량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6섯개의 장르 중 각 평균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여준 장르는 코미디이며 드라마와 로맨스가 그 뒤를 이었다. 코미디는 언어의 유희를 통해 웃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대사 의존도가 가장 높은 반면,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는 액션, 공상과학, 스릴러는 대사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장르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60개 대본으로부터 고빈도 어휘 20개와 20개 어휘의 클러스터를 추출하여 영화의 중심 사건을 추론하였다[14].

A. Salway et al.(2005)는 75편의 영화 대사로부터 고빈도 어휘들과 고빈도 어휘들을 포함하는 언어(collocation)들을 추출하여 영화 속 중심 사건들을 추론하였다. 75편의 영화 대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 "look at", "turns to", "smiles at"은 영화의 중심 사건을 기술하는 기본 행위(basic action)로 간주하였다[10].

Salway & Graham(2003)은 2편의 영화 대사를 대사로부터 핵심어 검출(keyword spotting)을 통해 영화 속 캐릭터들에 의해 발화되는 감정어(emotion word)를 추

출하고 이를 22개의 감정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장르에 따른 감정어 특징을 제시하였다. 로맨스 장르에는 like(좋아함), hope(희망), admiration(감탄)의 감정 범주에 속하는 감정 형용사의 비율이 높은 반면, 공포 영화 속에는 fear(공포), distress(고통)의 감정 범주에 속하는 감정 형용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르가 어휘 사용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영화에서 감정어의 발현은 극적인 사건과 관련되며, 극적 갈등과 이완에 따라 감정어 비율이 증감한다고 하였다[11]. 이 연구는 감정과 서사간의 상관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감정어 추출이 한정된 어휘들로 구성된 감정어 목록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화 속 감정어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추출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problem', 'accident'와 같은 내재적(connotative) 감정어 역시 추출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 2. 국내 연구 사례

국내의 경우, 정량적 방법을 통한 고빈도 어휘와 서사와의 상관성 연구는 문학 작품에 한정 되어 진행되었다. 문헌별, 김일환(2011)은 김남천 소설 17편으로부터 빈도수에 따라 유의미한 어휘들을 추출하여 고빈도 특정 어휘들이 작가의 시기별 작품 속에 나타난 주제 의식과 의미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수도 사용을 문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공들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 <공장신문>에는 '직공', '공장', '조합', '파업' 등과 같은 어휘들이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직공'이라는 어휘는 '수도'라는 어휘와 빈번하게 공기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4].

정철근(1997)은 두 남녀의 비극적 욕망 치정극을 그린 프랑스 소설 <테레즈 라깁>(Therese Raquin)의 어휘량을 통계화한 결과, 고빈도 어휘들은 소설의 중심 테마인 '살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작품의 의도를 드러낸다고 하였다[8].

함준석, 이신영, 고일주(2011)는 정서 단어 추출을 통해 문학 작품을 지배하는 정서 흐름을 분석하였다.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과 윤오영의 수필<방망이 깎던 노인>의 문학 텍스트에서 형태소 단위의 단어를

추출하여 434개의 정서 단어 데이터베이스와 매칭한 후 정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단어들을 Russell의 쾌-불쾌, 활성화를 나타내는 정서원형모형과 Ekman의 6가지 기본 정서를 이용하여 지배적 정서를 도출한 후 작품의 내용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9]. 하지만 추출된 정서 단어 개수가 현진건의 소설의 경우 18개, 윤오영의 수필의 경우 12개로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작품 전체의 내용과 정서간의 상관성을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다.

남승석(2011)은 한국 영화 <박쥐>의 남자 주인공 상현의 대사에 나타난 '비유창성(Disfluencies)'비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비유창성은 "문장을 일관성 있게 하는 순조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자발적인 말수정(spontaneous self-repair)으로써, 웃음소리, 기침소리, 숨소리 같은 잡음과 '저', '아', '어'와 같이 어절의 반복과 같은 비사전적인 음성들"[2]이다. 남승석은 비유창성이 서사 구조에 따라 그 비율이 증감하며, 캐릭터의 감정과 극적인 사건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2]. 이 연구는 영화 대사에 나타난 비유창성이라는 음성적 특징과 서사가 갖는 관련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문장과 단어를 제외하고 음성적 부분에만 국한시켰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유은순과 박승보(2011)는 대규모 영어 어휘 데이터베이스인 워드넷(WordNet)의 계층구조(hierarchy)를 이용하여 5편의 영화 대본으로부터 감정어를 자동 추출하고 이를 개념적 거리(conceptual distance)에 따라 30개의 감정 범주로 자동 분류하였다[13]. 하지만 이 연구는 'happy(행복한)', 'sad(슬픈)'와 같은 감정 형용사들을 계량적으로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으며 영화 서사에 따른 감정어의 변화 양상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 III. 영화 대사의 이론적 배경

1920년대 후반 사운드가 영화에 도입되면서 유성 영화의 시대가 열렸다. 유성 영화는 발성 영화를 뜻하며 이는 대사가 영화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영화의 근본적인 속성을 시각적 예술

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영화의 분석 대상은 편집기술과 샷(shot), 장면(scene)등의 영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대사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영화의 총체적인 의미는 영화를 구성하는 이미지, 음향, 음악의 시청각적 요소들과 배우들에 의해 발화되는 대사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영화 이론가 Vassé(2010)와 Kozloff(2000)는 영화 연구에서 대사가 영화 서사를 진행시키는 주요한 도구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화의 스토리텔링에서 대사의 기능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사이코>는 대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작품이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정신과 의사는 5분여에 걸친 긴 대사를 통해 정신분열증 환자 노먼 베이츠가 이중성격을 갖게 된 원인과 살해 동기를 설명해줌으로써 사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었다. 또한 영화에서 '돈'이 아닌 '욕망'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던 히치콕의 의도는 정신과 의사의 대사 "이건 욕망 때문이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를 통해 직접적으로 발화되었다. 이처럼 스릴러 영화에서 비밀이 폭로되고, 코미디 영화에서 웃음을 유발하고, 로맨틱 코미디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모두 대사를 통해서이다.

III장에서는 Vassé와 Kozloff의 이론을 중심으로 대사가 영화의 서사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본다.

#### 1. 대사의 정의

Vassé는 대사를 "서사 운용(運用)에 기여하는 시나리오적 재료"[18]로 정의하였고, 독백(monologue), 대화(duologue), 보이스오버(voice-over)와 같은 다양한 언어적 형식 속에서 구체화된다고 하였다[18]. 오길경(2006) 또한 대사를 서사를 진행시키는 도구로 보고 대사는 "극과 등장인물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학성, 예술성, 오락성 등 작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만든 특수한 언어"[2]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대사는 시나리오의 주요 구성 요소로써 이야기의 실체를 형상화하는 언어 텍스트이다.

#### 2. 대사의 기능

영화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대사의

기능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Vassé에 의하면 대사는 영화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대사를 통해 캐릭터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다른 인물들의 소식을 전달한다[18]. 관객은 대사를 통해 캐릭터의 이름과 직업, 나이, 처한 상황등의 외적인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소심함, 대범함 같은 내면적 특징들도 대사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Kozloff와 McKee 또한 대사는 캐릭터의 내적 동기(motivation)와 욕망을 드러내어 관객이 캐릭터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였다[17][19].

둘째, 대사는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감정도 전달한다. 캐릭터는 대사를 통해 사랑을 고백하거나 잘못을 자백함으로써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실수나 말더듬기, 주저와 망설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도 한다[18]. Kozloff는 캐릭터가 대사를 통해 표출하는 다양한 감정은 캐릭터에 대한 관객의 감정적 동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대사는 관객의 감정까지 지배한다고 하였다[19].

셋째, Vassé는 대사가 장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 장르마다 고유한 대사 유형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멜로 영화의 대사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풍부한 어휘들과 가슴에 직접 호소하는 밀도 높은 어휘들이 출현하며, 코미디 영화는 실수, 말더듬기, 오해와 같이 희극성을 유발하는 다양한 언어유희에 의존한다고 하였다[18].

넷째, 대사를 통해 사건과 갈등이 표출된다. 숨기기, 거짓말하기, 더듬기와 같이 말의 다양한 상황을 통해 극적 긴장을 유발한다[18]. Kozloff는 ‘말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서사적 사건이라고 하였다[19]. 왜냐하면 등장인물은 말을 통해 다른 인물에게 “약속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질문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잘못을 사과한다. 따라서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19]을 의미한다. 류시웅(2002) 또한 “극의 사건은 오로지 언어화되고 극의 인물들의 직접적인 대사를 통해 실현될 때에만 존재한다”[3]고 하였다. 이처럼 대사는 사건과 갈등을 표면화하여 서사를 클라이막스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 동시에 사건과 갈등의 해소도 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스릴러 영화의

경우 비밀이나 중요한 정보가 폭로됨으로써 사건의 해결이 이루어지고,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 두 남녀가 행복한 결함을 이루게 된다.

다섯째, 대사는 관객에게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전달해줌으로써 플롯을 전개하고 서사를 진행시킨다[19]. 영화 대사는 관객에게 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해줌으로써 관객이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사는 서사 구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캐릭터의 감정 상태, 사건의 인과관계 등을 전달함으로써 영화의 시청각적 요소 못지않게 영화의 서사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IV. 영화 <시라노;연애조작단>의 서사 분석

Rubinstein(1982)은 로맨틱 코미디를 “말의 세계(world of talk)”[12]라고 하였다. 그만큼 다른 장르에 비해 대사 의존도가 높은 장르임을 뜻한다. 본 연구는 로맨틱 코미디가 등장인물의 감정과 서사간의 상관성을 고찰하기에 적합한 장르라고 판단하고, 연구 대상으로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시라노;연애조작단>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영화 속 대사에 나타난 감정과 서사가 갖는 관련성을 고찰하기 위해 IV장에서는 영화 <시라노;연애조작단>의 서사를 분석한다. 분석에 앞서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적 관습들을 서사와 플롯, 캐릭터 측면에서 살펴본다.

##### 1.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적 관습

스크루볼 코미디로 별칭하기도 하는 로맨틱 코미디는 “멜로 드라마와 코미디 장르가 결합된 혼성 장르”[1]이다. 로맨틱 코미디는 비극적 정서를 추구하는 멜로 드라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희극성을 추구하는 코미디와 결합하면서 멜로 드라마와는 구별되는 장르적 관습들을 형성하였다. 장르 영화에는 일정한 패턴의 이야기 공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로맨틱 코미디는 “남녀 관계를 다루되, 주인공들이 서로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만 난관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합"[15]을 다룬다. 따라서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적인 서사 전략은 이성애에 대한 구애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구애의 과정에서 두 남녀가 성격이나 신분, 경제적, 성적 차이 등의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다[16].

서곡숙(2005)은 로맨틱 코미디 서사의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로 인지전략을 강조한다. 인지전략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흔히 사용되는 서사 전략으로 “등장 인물들 간의 정보 차이를 통해 긴장과 놀람, 웃음을 유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6]. 등장 인물은 정보에 대한 무지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발견을 통해 정보를 인지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된다.

윤성은(2011)은 로맨틱 코미디의 플롯을 [표 1]에서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16].

표 1. 로맨틱 코미디의 플롯 유형

유형	플롯
1	커플-갈등-이별-(재)결합
2	만남-갈등-결합
3	만남-갈등(1차)-결합-갈등(2차)-이별-(재)결합

로맨틱 코미디는 위에 제시된 전형적인 플롯을 사용하거나 혹은 변형된 플롯을 통해 상반된 두 남녀의 만남과 갈등, 그리고 행복한 결합이라는 예측 가능하고 친숙한 이야기를 답습한다.

로맨틱 코미디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전형적인 특징은 주인공 남녀 모두 개성과 자기주장이 강하다. 서로 다른 주장과 개성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나며 개인적 취향과 성적 차이를 드러내는 말다툼이 관습적으로 등장한다. 남녀 주인공 외에도 남녀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연 커플이 등장하거나, 라이벌 캐릭터가 등장하여 삼각관계 혹은 사각 관계를 형성한다[16].

2.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에 나타난 장르적 관습

2010년 김현석 감독이 연출하고, 임태웅, 최다니엘, 이민정, 박신혜가 출연한 <시라노; 연애조작단>은 268만 4798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하였고 제31회

청룡영화상에서 각본상을 수상함으로써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았기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영화는 연애에 서툰 사람들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은밀한 방식으로 사랑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연애조작단 ‘시라노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남자 주인공 병훈(임태웅)에게 자신의 과거의 여자 친구 회중(이민정)과 사귀게 해달라는 의뢰인 상용(최다니엘)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네 남녀의 갈등과 결합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회중에 대한 상용의 구애 플롯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회중과 상용이 만나 갈등과 오해를 겪지만 상용이 회중의 사랑을 얻는데 성공하여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된다는 점에서 위에서 제시한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형을 따르고 있다. 또한 로맨틱 코미디의 주요 서사 장치인 인지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회중과 병훈이 옛 연인 이었다는 사실을 상용이 알지 못하는데서 긴장과 웃음이 유발되고, 회중은 상용의 구애가 병훈의 시라노 에이전시에 의해 미리 사전 계획된 것임을 알지 못하다가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그동안 상용과 자신 사이에 존재해왔던 병훈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플롯과 그것의 변형을 중첩시킨다. [그림 1]은 상용과 회중의 전형적인 플롯과 병훈과 회중의 변형된 플롯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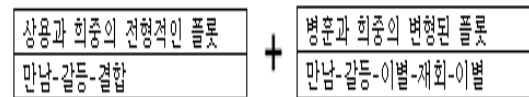


그림 1. 영화의 플롯

상용과 회중의 경우, [그림 1]의 2번째 유형인 ‘만남-갈등-결합’의 플롯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며, 병훈과 회중의 경우, [그림 1]의 2번째 유형을 변형한 ‘만남-갈등-이별-재회-이별’의 플롯에 따라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3. 서사 구조 분석

영화 <시라노;연애조작단>은 대신 사랑을 이루어주

는 시라노 에이전시를 배경으로 헤어진 연인 병훈과 희중 커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희중을 사랑하는 상용 그리고 희중에 대한 과거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병훈을 사랑하는 민영(박신혜)을 통해 사랑의 의미와 진정성을 다루고 있다. 서사 구조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로 구분하여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단에서는 선아를 짝사랑하는 현근이 시라노 연예 제작단 에이전시의 도움으로 선아와의 사랑을 이루는 완결된 형태의 이야기가 에피소드처럼 삽입되어 있다. 이 에피소드는 연예제작단 시라노 에이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 조연 캐릭터를 소개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에피소드가 끝나고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상용이 희중과의 사랑을 의뢰하기 위해 병훈이 운영하는 시라노 에이전시로 찾아온다. 병훈은 상용이 짝사랑하는 희중이 자신의 옛 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상용의 제안을 거부하지만, 결국 의뢰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전개에서는 시라노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 상용과 희중의 만남이 시작되고, 동시에 병훈과 희중이 우연히 재회하면서 인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위기에서는 병훈과 상용, 희중, 그리고 병훈과 희중, 민영사이에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상용이 희중의 남자관계를 오해하면서 인물들 간의 갈등이 수위를 높여간다. 절정에서는 희중에 대한 상용의 사랑이 진심임을 알게 된 병훈이 상용과 희중을 이어주기 위해 상용을 도와 사랑의 고백을 준비한다. 상용은 이어폰으로 들려주는 병훈의 대사를 희중에게 고백하는 도중, 병훈의 대사가 끊어지자 자신의 힘으로 희중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병훈과 상용의 진실된 고백으로 희중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용의 마음을 받아들인다.

결말은 상용과 희중과의 행복한 결합이 이루어진 후 병훈은 연극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민영과의 새로운 사랑을 암시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표 2]는 서사 단계별 중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2. 서사 단계별 중심 내용

서사 단계		중심 내용
ACT 1	발단	· 시라노 에이전시의 도움으로 선아와 현근이 사랑을 이룸 · 상용이 희중과의 사랑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 오고 병훈은 옛 연인이었던 희중과의 관계 때문에 갈등하지만 결국 상용의 의뢰를 받아들임
ACT 2	전개	· 시라노 에이전시의 도움으로 상용과 희중의 만남이 시작됨
	위기	· 상용에 대한 병훈의 질투가 커지면서 갈등이 시작되고, 오해로 인해 상용과 희중이 헤어지면서 인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됨
ACT 3	절정	· 상용과 희중을 이어주기 위해 병훈이 상용을 도와 사랑의 고백을 준비하고 상용은 희중의 사랑을 얻는데 성공함
	결말	· 병훈은 다시 연극을 시작하고 민영과의 새로운 사랑이 암시됨

#### 4. 갈등의 양상과 해결

로맨틱 코미디는 두 남녀의 행복한 결합을 이끄는 ‘과정’, 즉 일련의 갈등과 그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영화 <시라노; 연애제작단>의 주요 갈등과 긴장은 과거에 사랑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헤어진 병훈과 희중이 다시 재회하면서 겪게 되는 복잡한 감정과 상용과 희중 사이에 새롭게 싹트는 미묘한 감정, 그리고 과거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병훈에 대한 민영의 짝사랑이 중첩되면서 발생한다. 병훈은 옛 연인 희중과 의뢰인 상용을 이어주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사랑과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상용과 희중의 만남이 진행될수록 상용에 대한 질투심이 커져간다. 희중은 과거 병훈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상용의 구애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상용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이별하게 된다. 여기에 병훈을 사랑하는 민영이 희중과 대립하면서 인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그런데 여기서 인물들 간의 갈등과 긴장을 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인물은 민영이다. 상용이 희중에게 프러포즈를 하는 도중 대사를 잊어버리자 병훈은 상용에게 이어폰으로 대사를 전달하기 위해 대본을 찾는다. 하지만 민영은 대본을 일부러 숨기고 병훈이 대본 없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병훈은 과거에 자신의 잘못으로 희중과 헤어진 것에 대한 후회와 희중과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심경을 담아 이어폰을 통해 상용에게 대사를 전달한다. 병훈의 진솔한 고백이 끝나고 감정을 이기지 못한 병훈이 더 이

상 대사를 전달하지 못하자, 상용은 병훈의 도움 없이 자신의 언어로 희중에게 프러포즈한다. 민영은 병훈이 진술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병훈이 희중에 대한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용은 결정적인 순간 병훈의 언어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희중의 사랑을 얻는데 성공한다. 희중 또한 두 남자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상용의 마음을 받아들인다.

## V. 정량적 분석을 통한 감정과 서사간의 상관성 분석

영화 <시라노;연애조작단>의 대사는 III장에서 제시한 대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대사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직업과 취향과 같은 개인적 정보와 이 영화의 모티프이자 영화의 전체적인 서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인 프랑스 희곡<시라노 드 벨주락>의 내용이 전달되었다. 로맨틱 코미디가 ‘멜로 드라마’와 ‘코미디’의 혼성 장르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는 두 개의 장르적 특징을 반영한 어휘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반영한 표현들을 통해 감동을 전달하고, 유머와 위트를 통해 희극성을 유발한다. 특히 이성애에 대한 구애와 사랑의 고백이 영화의 전체적인 서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감정 표현이 다양하고 밀도 있게 나타나고 있다. V장에서는 서사 단계에 따른 감정 표현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영화 속 등장인물의 감정과 서사가 갖는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감정 표현의 정량적 결과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감정은 얼굴 표정, 행위와 같은 비언어적(nonverbal) 요소를 통해 전달되기도 하지만 대사를 통해 언어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언어를 통해 표출된 감정 표현들에 국한하였고, 이야기를 이끌어어나가는 4명의 주인공 병훈, 상용, 희중, 민영의 대사에 한정하여 감정 표현들을 수작업으로 선별하였다.

[표 3]은 주연과 조연, 단역을 포함한 전체 대사의 문장수와 단어수 그리고 4명의 주인공들 각각의 문장수와 단어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영화 대사 전체 문장수와 전체 단어수, 주인공 4명의 문장수와 단어수

대사 전체 문장 수	1201	
대사 전체 단어 수	5008	
주인공 4명	문장 수	단어 수
병훈	328	1306
상용	215	924
민영	158	619
희중	147	614
총합	848	3455

4명의 주인공들의 총 문장 수와 단어 수는 각각 848개와 3455개로 대사 전체에서 각각 70.607%와 68.98%를 차지하고 있다. 4명의 인물 중 병훈이 가장 많은 문장 수와 단어 수를 보이며, 상용, 민영, 희중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감정 표현은 4명의 주인공들이 만남에서 결합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련의 복합적 심리와 기분, 느낌과 생각을 어휘로 표출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양아치” 등은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외연적(denotative)인 표현인 반면, “말에 빠가 있다”, “그만 됐습니다”, “이해 못했습니다” 등은 감정이 함의된 내연적(connotative)인 표현들이다. 또한 “얼어 죽을”, “초칠라고”, “오바하지마” 등의 관용구와 외래어는 구어체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표현들이다. [표 4]는 감정 표현의 형태와 예시를 나타낸 것이고, [표 5]는 선별된 감정 표현들을 긍정과 부정으로 극성을 분류한 것이다.

표 4. 감정 표현의 형태와 예시

감정 표현의 형태	예시
어휘와 구(句)	“죄송합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억울하다”, “사랑합니다”, “안좋아”, “이해 못했습니다”, “그만 됐습니다”, “장애물”, “문제가 생겼는데요”, “재수 없는” 등
관용구	“얼어 죽을”, “초칠라고”, “말에 빠가 있다”, “입 다물고 있어”, “피 빨아 먹는”, “도달지 마세요” 등
속어	“양아치”, “깨네요”, “늬땡이”, 등
외래어	“오바하지마”, “tais-toi(조용히 해)”



표 5. 감정 표현들의 극성 분류

극성	감정 표현 예시
긍정	“잘됐다”, “좋아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했는지”, “좋아”, “깨달았어요”, “사랑합니다”, “행복한” 등
부정	“번차”, “포잔한”, “아니깝고”, “글러먹었어”, “아니에요”, “망쳐냈잖아”, “대판 싸우고”, “오해라구”, “안느껴져”, “딱 딱해요”, “파토났다”, “입 다물고 있어” 등

주인공 4명의 대사로부터 선별한 감정 표현의 총 개수는 145개이며, 그 중 긍정 감정 표현이 44개, 부정 감정 표현이 101개로 부정이 긍정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표 6]은 각 인물별 전체 감정 표현 수와 극성 분류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2]는 [표 6]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6. 인물별 전체 감정 표현 개수와 극성 분류

등장인물	전체 감정 표현 개수	긍정 감정 표현 개수	부정 감정 표현 개수
병훈	63	21	42
상용	33	14	19
희중	28	3	25
민영	21	6	15
총합	145	44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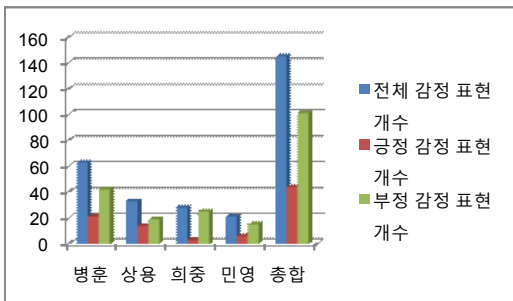


그림 2. 인물별 전체 감정 표현 개수와 극성 분류 그래프

주인공 4명의 감정 표현의 비율을 살펴보면 문장수와 단어수가 가장 높았던 병훈이 63개로 가장 높았고, 4명 모두 긍정보다 부정 감정 표현이 높게 나타났다.

서사 단계에 따른 감정 표현의 비율을 살펴보면 발단-전개-위기 단계까지 부정이 긍정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물들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위기 단계에서 부정 감정 표현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반면에 갈등의 해결이 일어나는 절정과 결말에서는 긍정 감정 표현의 비율이 부정 감정 표현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7]은 서사 구조 5단계에 따른 주인공 4명 전체의 감정 표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3]은 [표 7]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7. 서사 구조에 따른 감정 표현의 비율

감정어 극성	서사 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긍정	1	10	8	22	3
부정	8	12	68	9	0
총합	9	22	76	3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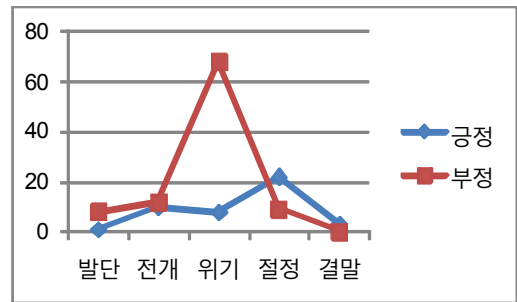


그림 3. 서사 구조에 따른 감정 표현의 비율 그래프

[표 8]은 서사 단계별 주인공 4명의 각각의 감정 표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4]는 [표 8]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8. 서사 단계별 주인공 각각의 감정 표현 비율

등장인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총합
병훈	7	6	28	21	1	63
상용	0	11	12	10	0	33
희중	0	6	22	0	0	28
민영	2	1	16	0	2	21
총합	9	24	78	31	3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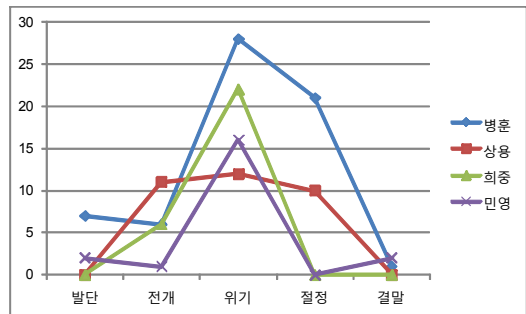


그림 4. 서사 단계별 주인공 각각의 감정표현 비율 그래프

[표 8]과 [그림 4]를 보면 전개 단계를 제외한 발단-

위기-절정 단계에서 병훈의 감정 표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위기 단계에서는 주인공 4명 모두의 감정 표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는 서사 단계별 주인공 4명의 각각의 감정 표현의 극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9. 서사 단계별 주인공 4명의 각각의 감정 표현의 극성 비율

인물	감정 극 성	서사 단계					종합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병훈	긍정	1	1	2	16	1	21
	부정	6	5	26	5	0	42
상용	긍정	0	6	2	6	0	14
	부정	0	5	10	4	0	19
희중	긍정	0	3	0	0	0	3
	부정	0	3	22	0	0	25
민영	긍정	0	0	4	0	0	6
	부정	2	1	12	0	0	15
	종합	9	24	78	31	1	145

[표 9]를 보면 부정 감정 표현 비율이 가장 높은 인물은 병훈과 희중으로 위기 단계에서 각각 26개와 22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 감정과 서사간의 상관성 분석

위에서 제시한 서사 단계에 따른 주인공 4명의 감정 표현의 분포량을 통해 감정과 서사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이야기의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발단부에는 등장인물의 출현, 공간적 배경, 사건의 발단, 갈등의 암시와 같은 스토리 전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가 주로 소개[5]되기 때문에 주인공 4명의 감정 표현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발단 단계를 살펴보면 병훈과 민영에 의해 발화된 감정 표현이 각각 7개와 2개로 총9개이며 이중 8개가 부정에 속한다. 발단부를 지배하는 부정적인 감정 표현들은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 상용이 희중과의 사랑을 의뢰하기 위해 시라노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병훈을 찾아오고, 병훈은 희중이 자신의 옛 여자 친구라는 사실 때문에 상용의 의뢰를 거절하려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 표현들이 표출되었다. [표 10]은 발단부를 구성하는 주요 사건의 발생과 그에 따른 병훈의 감정 표현들의 예시이다.

표 10. 발단에서 일어난 사건과 사건에 따른 병훈의 감정 표현 예시

서사적 사건	병훈의 감정 표현 예시
병훈은 자신의 옛 연인인 희중과의 사랑을 이루어 달라는 상용의 의뢰를 거절하려고 함	“벼차”, “안좋아요”, “안맞아”, “고민을 하고 있었어”, “얼어 죽을”

전개 단계에서는 상용과 희중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상용에 대한 병훈의 질투로 갈등이 시작된다. 따라서 상용과 희중, 병훈의 감정 표현들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전개에서는 상용의 감정 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전개 초반 부정으로 시작하여 전개 후반에는 긍정으로 변화한다. 부정과 긍정을 오가는 상용의 감정 표현은 영화의 중심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상용은 병훈의 잘못된 계획으로 희중과의 만남이 실패로 돌아가자 병훈을 비롯한 에이전시 단원들과 대립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정의 감정 표현들을 표출하였다. 하지만 희중이 만남을 청해오면서 상용은 다시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 희중에게 구애를 시작하고, 희중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 표현 “~싶습니다”가 반복적으로 발화되었다. [표 11]은 전개의 주요 서사 사건과 그에 따른 상용의 부정 및 긍정의 감정 표현 예시이다.

표 11. 전개에서 일어난 사건과 사건에 따른 병훈의 감정 표현 예시

서사적 사건	상용의 감정 표현 예시
병훈의 잘못된 계획으로 상용과 병훈이 대립	“욱하는”, “다 부서”, “기분 나빠”, “부쉬버릴거야” 등
시라노 에이전시의 도움으로 희중에 대한 상용의 구애가 시작	“좋아합니다”, “싶습니다”

위기 단계에서는 병훈, 상용, 희중 그리고 병훈, 희중, 민영간에 삼각 관계가 형성되면서 인물들간의 갈등이 수위를 높여간다. 여기에 희중이 자신을 오해하고 믿지 못하는 상용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다. 따라서 주인공 4명의 부정 감정 표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78개의 감정 표현 중 부정과 긍정이 각각 70개와 8개로 극성 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발단과 전개 단계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희중과 민영의 감정 표현의 비율이 위기 단계에 오면서 비약적

으로 증가하였다.

위기 단계에서 가장 많은 부정 감정 표현을 나타낸 병훈의 경우, 회중과 상용의 관계가 발전하자 상용에 대한 질투와 적대감이 커질수록 부정 감정 표현의 수가 증가하였다. 병훈에 대한 사랑을 키워왔던 민영은 회중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병훈에 대한 원망과 회중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였다. 회중은 다시 재회한 병훈과 상용의 구애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과거 병훈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관계 회복을 원하는 병훈을 거부한다. 또한 자신을 오해한 상용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별을 통보한다. [표 12]는 위기 단계에 나타난 인물들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그로인해 표출된 감정 표현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표 12. 위기에서 일어난 인물들 간의 갈등과 그로인해 표출된 감정 표현 예시

서사적 사건	표출된 감정 표현의 예시
병훈-상용-회중의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병훈의 상용에 대한 적대감이 최고조에 다름	“알량한”, “더러운”, “피땀아 먹는다”, “죽속”, “임마”, “글러 먹었어” 등
병훈-민영-회중의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회중과 병훈에 대한 민영의 적대감과 원망이 최고조에 이른다	“입 다물고 있어”, “늬탱이”, “알량방구”, “초칠라고”, “사로를 쳐요”, “망쳐놔잖아”, “어긋나네” 등
회중은 병훈과 재회하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병훈을 거부함	“오해받기 싫어”, “아닌 것 같아” “말에 빠가 있다”, “장애물”, “양아치” 등
회중은 자신을 오해하고 믿지 못하는 상용에게 이별을 통보	“혼란스러웠어요”, “구차해지기”, “연락하지 마요”, “안믿을 거잖아”

위기 단계에 나타난 감정 표현 중에서 “오해”와 “안 믿다”라는 어휘는 병훈과 회중에 의해 빈번하게 출현하는데, 이는 회중이 과거에 병훈과 헤어지게 된 원인이자 현재의 연인 상용과도 이별하게 되는 동기이다.

발단부터 위기까지 부정적인 감정 표현들이 영화의 서사를 지배했다면, 절정 단계에서는 인물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해소됨에 따라 긍정이 부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적 특징은 사랑의 고백을 통해 두 연인이 행복한 결합으로 끝을 맺기 때문에 본 영화에서도 병훈의 도움을 받아 상용이 회중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얻는데 성공한다.

병훈은 오해 때문에 헤어진 상용과 회중을 이어주기 위해 과거에 오해와 기만으로 회중을 잃어버린 것에 대

한 심정을 대사에 담아 상용에게 이어폰으로 전달한다. 병훈은 긍정적 감정 표현인 “깨달았어요”, “알았죠”, “깨닫습니다”를 반복적으로 발화함으로써 과거 회중과의 사랑이 행복하고 소중했음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병훈의 대사가 끊기자 상용이 자신의 언어로 회중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긍정 감정 표현 “사랑합니다”가 반복적으로 출현하였다. [표 13]는 절정 단계에서 일어난 병훈과 상용의 고백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감정 표현의 예시이다.

표 13. 절정에서 일어난 사건과 사건에 긍정 감정 표현의 예시

서사적 사건	긍정 감정 표현의 예시
병훈은 과거 회중을 잃어버린 심경을 대사에 담아 상용에게 이어폰으로 전달	“알았죠”, “알고 있었어요”, “깨달았어요”, “깨닫습니다”. “소중했는지”, “사랑”, “믿음” 등
상용이 자신의 표현으로 회중에게 사랑을 고백	“사랑합니다”

절정에서는 회중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상용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대사가 아닌 회중의 얼굴 표정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회중의 감정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말 단계에서는 상용과 회중의 행복한 결합이 이루어진 후 병훈은 연극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자신의 연극 공연을 찾아온 민영과 새로운 사랑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 출현하였다. [표 14]는 병훈과 민영의 새로운 사랑을 암시하는 긍정의 감정 표현이다.

표 14. 결말에서 일어난 사건과 사건에 따른 긍정 감정 표현의 예시

서사적 사건	긍정 감정 표현의 예시
병훈과 민영의 새로운 사랑이 암시	“예뻐졌네”, “안망하겠던데요”, “좋은”

이와 같이 주인공 4명에 대한 감정 표현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서사 단계에 따라 감정 표현들의 비율이 변화하는 양상을 통해 감정과 서사와의 관련성을 살펴봐왔다. 감정 표현들은 사건의 발생과 갈등의 고조,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알려주는 의미있는 언어적 지표로써, 극의 긴장과 이완에 따라 부정과 긍정 사이를 역동적으로 오가며 서사를 이끌어어나간다.

본 논문은 감정 표현들을 2개의 극성(긍정, 부정)으로만 분류했는데, 감정 표현들을 세분화하여 서사 단계별로 이슈가 되는 특정 감정들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편의 영화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향후에 대규모 영화 대사 말뭉치를 구축하여 인지과학, 전산학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감정을 포함한 서사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기대할 수 있다.

## VI. 결론 및 향후 연구

영화의 대사는 이미지와 함께 영화의 서사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매체라는 영화의 속성 때문에 영화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정량적 방법을 문학 텍스트에 활용한 사례는 많았지만 영화 대사에 적용한 사례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사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감정 표현들을 서사 단계에 따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감정과 서사가 갖는 관련성을 제시하여 대사가 영화의 서사 진행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한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시라노:연애조작단>의 대사는 영화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대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스토리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과 등장인물의 감정을 전달하고,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고유한 어휘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사건의 발생과 인과관계, 갈등의 해결 등이 대사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 본 연구는 등장인물들이 언어를 통해 표출하는 감정 상태에 주목하고, 대사로부터 주인공 4명(병훈, 상용, 희중, 민영)의 감정 표현을 수작업으로 선별하였다. 선별된 표현들을 다시 긍정과 부정으로 극성을 분류한 결과, 긍정 보다 부정의 표현들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과거의 감정과 새로운 사랑 사이에서 주저하고 갈등하는 영화의 서사에 기인하며, 사건의 발생과 갈등에 따른 부정적 의미의 속어와 관용구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각 인물들의 감정 표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서사

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영화의 서사 구조를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5섯 단계로 나누어 서사 분석을 진행하였다. 스토리 전개에 필요한 기본정보와 등장인물이 소개되는 발단부에는 감정 비율이 적게 나타나다가 상용이 사랑을 의뢰하기 위해 병훈을 찾아오면서 사건이 발생하고 갈등이 시작되는 전개부터 감정 표현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병훈-상용-희중, 병훈-희중-민영의 삼각관계가 형성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위기에서 부정에 속하는 감정 표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병훈과 상용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상용이 희중의 사랑을 얻는데 성공하는 절정과 결말에서 긍정의 감정 표현이 높게 나타났다. 등장인물들의 감정 표현의 출현은 중심 사건과 갈등 그리고 그 해결에 따른 것이며, 극적 긴장과 이완에 따라 감정 표현의 비율이 증감하였다. 이처럼 등장인물의 감정은 긍정과 부정 사이를 역동적으로 오가며 서사를 이끌어 나간다.

대사는 영화를 구성하는 이미지와 사운드적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그것들과 분리되지 못한다. 따라서 배우들의 얼굴 표정과 같은 시각적 단서들과 대사의 통합을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들어 영화와 애니메이션, 드라마와 같은 콘텐츠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어(spoken language) 표현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의 영화 대사 말뭉치를 구축하여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기술을 통해 서사를 구성하는 감정 표현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면 장르에 따른 감정 패턴과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 [1] 김정훈,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나타난 남성 캐릭터 재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11, 2013(2).
- [2] 남승석, "한국현대영화에서 캐릭터 디자인과 내러티브 구조를 위한 배우 대사 퇴행 : <박

취>(2009)에서 송강호 대사의 비유창성 비율에 대한 정량적 특징 분석”, 담화와 인지, 제18권, 제2호, pp.51-71, 2011.

[3] 류시웅, “문학 : 현대 드라마에 나타난 언어의 해체 - 슈트라우스, 이오네스코, 아호턴부쉬와 안들의 극 - 언어”, 독일어문학, 제18권, pp.1-19, 2002.

[4] 문한별, 김일환, “김남천 소설의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한 계량적 연구”, 현대조설연구, 제48호, pp.377-402, 2011.

[5] 박승보, 유은순, 정재은,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영화 스토리 발단부의 자동 경계 추출”, 지능정보연구, 제17권, 제4호, pp.279-292, 2011.

[6] 서곡숙, “2000년대 전반기 로맨틱 코미디영화의 인지전략 분석 :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와 <오! 해피데이>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제26호, pp.209-233, 2005.

[7] 오길경, *사회변천에 따른 배우의 화법 변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0, 2005.

[8] 정철근, “어휘 통계학과 텍스트 해설”, 한국프랑스학논집, 제23집, pp.517-538, 1997.

[9] 함준석, 이신영, 고일주, “텍스트의 정서 단어 추출을 통한 문학 작품의 정서 분석”, 감성과학, Vol.14, No.2, pp.257-268, 2011.

[10] A. Salway, A. Vassiliou, and K. Ahmad, “What Happens in Films?,” IEEE Conference on Multimedia and Expo, ICME, 2005.

[11] A. Salway and M. Graham, “Extracting Information about Emotions in Films,” Procs. 11th ACM Conference on Multimedia, 4th-6th pp.299-302, 2003(11).

[12] E. Rubenstein, “The End of Screwball Comedy: The Lady Eve and The Palm Beach Story,” Post Script. Vol.1, No.3, pp.33-47, 1982.

[13] E. S. You and S. B. Park, “Improved Performance of Emotion Extraction Through

Banned Word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T Convergence and Security 2011, pp.495-505, 2011.

[14] V. Lingabavan and A. Salway, “What are they talking about? Information Extraction from Film Dialogue,” Dept. of Computing Technical Report CS-06-07, University of Surrey, 2006.

[15] 김광철, 장병원, *영화사전*, Meadia 2.0. 2004, p.101

[16] 윤성은, *로맨스와 코미디가 만났을 때 : 한국 로맨틱 코미디의 구조와 변형*, 이담북스, pp.44-75, 2011.

[17] 로버트 맥기, 고영범, 이승민 역,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황금가지, pp.368-378, 2006.

[18] 클레르 바쎬, 박지희 역, *대사 (글로 쓴 텍스트에서 연출된 목소리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p.7-8, pp.15-31, p.67, 2010.

[19] S. Kozloff, *Overhearing Film Dialogue*, USA Californi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33-50, 2000.

저 자 소 개

유 은 순(Eun-Soon You)

정회원



- 1995년 : 인하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학사
- 2000년 : 프랑스 브장송 대학교 언어학 석사
- 2007년 : 프랑스 브장송 대학교 언어학 박사

- 2011년 ~ 2012년 : 단국대학교 미디어콘텐츠연구원 전임연구원
- 2012년 ~ 현재 :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리서치 펠로우

<관심분야> : Digital storytelling, Ontology, Semantic Web, Machine Translation, Social Media, Emotion